

[2019-4-21] 주일 말씀 녹취록

제목 : 승리의 아침

말씀 : 강만석 목사님

본문 : 요한복음 20:11-18

11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푸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12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13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줄 알지 못하더라

15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17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18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부활의 아침입니다 참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날씨, 마음은 물론이고 생각도 뜻도 하늘까지도 맑고 깨끗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서 웃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편히 잠을 잘 수도 없는 한 주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참 처절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냥 쉽게 매일 매일 지낼 수 있는 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수난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2000년전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처절한 고난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고 미국이 어떤 젊은 청년은 사귀던 애인을 감쪽같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인이 누구도 의심없이 자살한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청년이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수를 합니다. 내가 내 애인을 살인하였다고... 이 영화가 이런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얼마나 처절했는가? 정말 내가 그 광경을 보면서 내 죄를 뉘우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고난을 생각하며 보내는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세상이 확 달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찬송도 달라지고 오늘 예배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잔치집에 온 기분입니다 아주 밝고 환하고 소망적인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 세상에 부활의 선물이 주어졌고 이 땅에 부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소망도 주어졌습니다 은혜도 주어졌습니다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도 힘도 다 주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을 오가며 어느 영화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자가 병으로 죽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줍니다. 죽어 가는 이 손자에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해 줍니다 나는 너보다 내가 먼저 죽을 줄 알았다 근데 너가 먼저 가는구나 나도 곧 너를 따라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주안에서 부활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것이 부활이 주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귀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이 부활이 주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과정이 아주 신비롭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낮,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 밤에 무덤에 묻히십니다. 또 토요일 하루 종일 무덤에 지내십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일찍 부활하셨습니다 그 아침에 그 아침이 바로 오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는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민첩한 마리아가 주일 아침에 날이 밝으려 하자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1절에 보면 안식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생존시 참으로 지극 정성을 다하여 사역하시는 것을 도왔던 분입니다. 제자들 보다 훨씬 나은 재능을 발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그 고난의 행렬을 끝까지 따라가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은 모친 마리아와 함께 끝까지 십자가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가장 마음이 아파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충격 받은 여인도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식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제자들을 선도하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마리아는 금요일 밤 토요일 하루 종일 주님이 무덤에 있는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주일 아침에 일찍 날이 새기도 전에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주일 날 날이 밝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갔다 하였습니다. 가서 보니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세마포만 놓여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로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성경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했습니다. 무겁게 무덤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 사실 전하러 달려가는 이 여인의 발걸음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언자가 됩니다 이 여인은 이런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은 여인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모두 여인들 덕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살면은 여인들이 언제나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믿음뿐 아니고 매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날 정치도 보면 남자들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집중합시다 하자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직 숫자가 모자랍니다 우리는 이번에 모두 참여해서 믿음 위에 우뚝서서 승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거나 믿으면은 남자들이 여성들을 못 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딱 부러지게 참 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도 여성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이 여성이었습니다 평소 제자들은 큰 소리가

치더니 정작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이 전해 주어서 비로소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 첫 목격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가보니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 생활의 중요한 요소는 이 간절함과 사모함입니다. 신앙인에게 이 복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모함 속에 복음 속에 신앙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간절함이 있을 때 영적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영적 힘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과거에 좋은 일을 했던 힘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만날 때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말을 잘 못합니다. 허둥지둥 답니다. 그리스도 간절함 속에 사단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가정과 지역과 자녀들에게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는 당연하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는 그리스도 유일한 유일한 구원자라는 비밀을 누리시고 늘 고백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에서 초지일관 하는 신앙의 열정과 중심이 있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고 영적 힘이 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둔감하게 대체했습니다 부활 하셨을 때도 참 둔감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 제자들은 허둥합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는 잠을 잡니다. 가장 위급할 때도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부활 때도 날이 밝았는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마리아가 전해 주어서 알았습니다. 2절을 보면 마리아가 사건을 알고 달려가 제자들에게 알렸다 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때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무덤으로 달려갔다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민첩성이나 의지력이나 이해력이 한결같이 둔했습니다. 이렇게 감각이 없으면 낙오가 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민첩성 있어야하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잘 안 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 믿었어도 가진 것이 많았어도 한번 흑암에 휘둘리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분명히 복음의 사람들 그리스도 비밀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하시게 되어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하실 때 예민함과 민첩성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 속에 주시는 응답 받기 위해서 예민하고 민첩성 있는 삶을 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생활 속에 신앙 생활 속에 이 민첩성이 떨어지면 이렇게 불행해집니다 가진 거 다 잃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 민첩성이 떨어지면 이렇게 낙오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매를 갈다 길쌈을 하다 하나는 들림 받고 하나는 낙오가 된다 했습니다. 그것이 영적 민첩성이 둔감해져서 뒤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영적 힘을 가지고 말씀, 기도 속에 민첩성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혼인잔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주로 밤에 행했습니다 그래서 들러리들은 반드시 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은 밤 늦게 옵니다 그런데 민첩한 여인들은 밤새울 각오를 하고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영적 힘을 잃고, 성령인도 못 받으면 예수님 오시는 날 밤에 졸고 있습니다 졸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신랑이 온다 하니까

허둥지둥 대면서 정신을 차려보니 불은 이미 꺼져 가고 있습니다 기름은 바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기름을 꾸어 달라고 하는데 누가 꾸어 주겠습니까? 그때서야 기름을 준비하러 다니니 무슨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민첩성이 없는 사람들의 성령인도 못 받는 사람들의 여인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바로 이 민첩성이나 의지성 그리고 감각이 한참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언제나 낙오되고 순서에 밀려 뒤쳐지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 줬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덤에 달려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에 쌓던 수건 세마포가 함께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시체를 찢던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단 곳에 찢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은 이미 부활했고 시체를 찢던 세마포는 놓여 있다 했습니다 이미 부활하셔서 그곳을 떠나신 후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서 만나야 합니다 왜 만나야 하는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방에 알려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만나야 합니다. 엿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습니까? 엿그제 환난 당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고 그래서 아픔을 당했고 기가 죽어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확인하고 나가서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 수모 당하신 예수는 죽지 않고 살아서 부활하셨다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한 제자들은 그 실수와 부끄러움을 만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조금 찾아보다가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마디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첩성과 감각의 문제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질 차체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라면 선생님을 끝까지 찾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만 골라서 제자를 삼으셨을까요? 정말로 정말로 무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들을 타할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을 보면서 곧 내 자신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자들의 무지한 행동이 곧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제자들이 무지한 모습이 곧 나의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돌아갔는데 혼자 남아서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그자리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봅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안을 들여 보았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나는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상이 있고 보상이 주어집니다 찾는자는 찾아 지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돌아갔어도 혼자 남아 또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이며 보상이며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해 줍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두 번째 달려 가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났다고 전해들은 제자들은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너무 야속하다 생각지 않으셨을까요?

아쉬움은 많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반드시 더 알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분과도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있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직분에 고하를 막론하고 신앙 연륜이 길고 짧음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과 내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다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 되어지는 문제 어려운 문제 우리 부모님과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 속에 흑암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어지십니다. 복음 속에 있으면 우리 삶이 우둔한 것이 아니라 민첩성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신앙의 요소입니다. 이것이 찾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부활주일을 맞이 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가? 분명히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나와 내가 가정은 또 우리 아이들은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잘 되어져 가고 있는가 안 되어져도 괜찮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되신 이 비밀과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흑암이 무너지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얼마나 잘 믿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시간에 초신자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하시고 내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영접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복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되신 비밀을 마음껏 누리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주일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저희들 구원 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셔서 현장의 복음 전할 때 현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에 복음 받을자가 얼마나 많기에 저희들 부르셨지만 저희들 현장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고의 축복을 마음껏 챙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함께한 우리 램턴트들 기억하시고 그들 마음속에도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비밀을 맘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